

대한민국 대표 드론축제 자리매김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첨단 기술 체험형 페스티벌로 관람객 호응

남원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열린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전년 대비 38.4% 증가한 24만 6천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드론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올해 드론제전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자, 국내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K-Drone to World Festival’의 피날레 무대로 개최되었다.

이번 제전은 드론과 로봇 산업을 융합한 첨단 기술 축제로,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페스티벌로 기획, 특히 가족 단위와 청소년 관람객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해 남원시가 지향하는 ‘참여형 미래산업 축제’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드론 체험, 로봇 코딩 체험 등 교육적·창의적 콘텐츠가 강화되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했고, 관람객의 체류 시간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드론·로봇 실증 전시와 체험 부스가 조화를 이루며 전시관 운영도 활기를 띠었다.

특히 작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201개의 체험 부스와 79개의 기업 및 기관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열린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참여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한 관람객 편의를 위한 바다 유도선, 행사장 열차도 함께 운영되었다.

올해 글로벌 푸드페스티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푸드트럭존, 로컬푸드존, 원푸드존, 새롭게 마련된 다문화 푸드존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남원의 맛과 세계 각국의 음식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형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푸드트럭존 참여 업체들은 축제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 장학재단에 기탁하기로 하며 지역과 함께 하는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남원시는 지역 교육지원청, 청소년 단체, 교사들과 협업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단체 관람을 유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남원국가유산야행’과 ‘홍부제’ 등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3대 축제를 함께 어우러지며 낮에는 첨단기술과 체험의 현장으로, 밤에는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야경 축제로 이어지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완성,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낮과 밤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풍성한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축제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개최

남원시는 오는 8일, 예천 마당에서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는 2025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을 개최한다.

‘다양한 가족 이리온(O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 네발 근로자의 랩 공연, 캄보디아의 전통무용 압살라 춤 등 다채로운 식전 공연이 준비되어 있

으며 각국의 예술이 전하는 다양성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압살라 춤은 천상의 요정이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며 추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전통무용으로 우아한 손짓과 고요한 미소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성과발표회 △다문화 장기자랑 △다문화 음식 체험 △전통의상 체험 △만들기 체험 △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보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농기센터, 스마트 양봉 농장 견학 · 현장 교육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임실 양봉연구회 회원 36명을 대상으로 부여군과 익산시 일원에서 스마트 양봉 농장 견학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해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농업 기술 확산을 도모했다.

먼저 부여군 송곡리 일대의 스마트

양봉 농장에서 강재선 대표로부터 ‘양봉산업의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교육을 받고, 기후변화와 꿀벌 개체수 감소 등 양봉산업의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공유하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스마트 벌통,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 먹이 공급시스템, 비가림 시설 자동 커튼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방식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관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방문한 익산시 여산면 황영주 농가에서는 비가림시설 설치, 겨울철 월동 관리, 벌통 이력 관리, 양봉장 외부 청결 유지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경천 · 양지천 수변 개발 ‘착착’

순창군, 종합개발사업 순항… 양지천 완공 후 수달 출현

순창군이 추진 중인 경천 · 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며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총사업비 175억 5천만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순창을 일원 총 4km 구간을 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의 첫 단추였던 양지천 구간은 이미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제방 꽃잔디 식재공사를 시작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산책로 조성 및 저수호안 정비공사가 완료되면서 1.4km 구간이 아름다운 수변 공간으로 변모했다.

특히 최근에는 양지천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발견돼 더욱 화제를 모았다. 수달은 깨끗한 수질과 건강한 생태환경을 필요로 하는 종으로, 이번 발견은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하천 생태 복원과 수질 개선이라는 실질적 환경 효과를 입증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는 경천 구간 2.6km 공사가 집



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경천과 양지천이 만나는 합류부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바닥분수와 화원을 갖춘 두물머리 공원이 조성되고, 대형 음악분수대가 지난 9월부터 설치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 완공 예정으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천을 따라서는 내년까지 조경식 심기와 함께 꽃잔디, 수선화, 튼신티 등 다양한 초화류가 식재돼 세계적 꽃길이 완성된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경천과 양지천 전 구간에 경관조명이 설치돼 밤에도 아름다운 수변 공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본격 추진

임실군이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을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추진한다.

심 민 군수는 4일부터 임실을 매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수매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농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은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의 판로 확보 및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2,291톤을 목표로 진행된다.

올해 매입 품종은 △임실벼 신동진, 새창무 △가부살 바로미2 총 3개 품종이다.



임실읍을 시작으로 관내 12개 읍 · 면 19개 장소에서 농가 편의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매입된 미곡은 임실군 정부양곡관리 창고에 분산 보관돼 비축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가을 성수기 강천산군립공원서 이벤트 진행

순창군이 가을 관광 성수기를 맞아 강천산군립공원에서 ‘찍GO! 반GO! 투어 이벤트’를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유산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총 480명의 강천산 입장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며, 순창군민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강천산 내 ‘포카나루(강천사 앞 위치)’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순창군 관내에서 사용한 1인당 1만 원 이상의 당일 영수증을 지참해 강천산종합관광안내소를 방문하면 된다.

안내소에서는 신분증 확인 및 간단한 수령 명단 작성 후 장류세트(된장, 고추장, 쌈장 각 120g)를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 돌입

남원시는 지난 3일부터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애초 10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로 단축 시행된다.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1,43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 시는 21개 공공기관 및 141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68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소득 · 재산 변동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복지대상자의 수급 적정성 확인을 통해 중복 및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복지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 이의신청 및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원이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안내를 통해 수급권자의 권리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개최

순창소방서는 11월 한 달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을 순창군 내 초등학생 및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홍보 ·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어린이 스스로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전 국민이 안전 공간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재예방을 주제로 한 손그림 포스터를 1인 1작품 제출할 수 있다. 작품 규격은 4절 크기(가로 38.4cm, 세로 54.5cm)이며, 11월 3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순창소방서는 자체 심사를 거쳐 우수작 4점을 선정, 도 소방본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본선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 등 총 6점의 수상작이 선정되며, 수상 결과는 12월 9일 전북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 ·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